



**김경희 원장, 전북대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전북대학교병원에 소아 희귀질환과 소아암·백혈병 환아를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김경희소아청소년과의원 김경희 원장이 소아 희귀질환 및 소아암·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 전달식은 병원 본관 3층 은고을홀에서 열렸으며, 양종철 병원장과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소는 대외협력홍보부실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는 장기적인 치료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아 희귀질환 및 소아암·백혈병 환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기금은 해당 환아들의 진료와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본, EBTS협동조합과 희망나눔**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나눔 확대를 위해 30일 이비티에스협동조합전주지국과 함께 소외계층 및 시각장애의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26년 세계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사회 곳곳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참여확대와 사회자변에서부터 다양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추진됐다. EBTS협동조합전주지국(관리국장 허중현) 직원들의 모금으로 구입한 커피(100T) 50박스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돼 자원봉사확대를 위한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새마을축구단, 창단 50주년 맞아 장학금 기탁**

김제사람장학재단은 지난 29일 김제시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동호회인 김제새마을축구단(회장 김태현)이 창단 50주년을 맞아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기탁은 김제새마을축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 및 제6회 김제새마을축구단 회장기 축구대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돼, 축구단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초 소프트테니스부, 단식 우승·준우승 쾌거**

장수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부가 제47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아우르는 고른 성과를 거두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닌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지속된 집중 훈련과 구성원 모두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로 평가된다. 장수초는 이번 대회에서 여자 초등부 단체전 3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전력을 선보였다. 또한 남자 개인복식에서 두 팀이 각각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고, 개인단식에서는 우승과 준우승을 동시에 차지하며 전국 무대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수=곽관호 기자

**기쁨 두배로, 슬픔 반으로... 나눔정신 실천**

**전북화물자동차운송협, 붓다와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양봉식)가 종교단체를 비롯한 어려운 시설에 대한 '기쁨은 두배로 슬픔은 반으로' 나눔정신을 실천해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마이진탐사 진성스님)는 30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붓다복지관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14명을 비롯해 지역 언론사 기자 2명, 불교방송 및 불교신문 기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봉사활동 공동 추진과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화물운송 종사자 복지 증진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및 (사)붓다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도내 화물운송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스님)는 비영리 불교 봉사단체로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 따라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 아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유지하고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양봉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붓다 마이진탐사 진성(스님) 이사장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와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화물자동차운송협회는 지난 십여년간을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권희성 기자



연장하기로 했다. 양봉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붓다 마이진탐사 진성(스님) 이사장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와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화물자동차운송협회는 지난 십여년간을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권희성 기자



**도,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 재임명**

전북특별자치도는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 원장으로 현 조준필 원장을 재임명하고, 30일 도청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이다. 도는 지난 1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 원장을 최종 확정했으며, 기존 임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해 연임을 결정했다. 조 원장은 "진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환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요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손 씻기 교육용 뷰 박스' 무상 대여**

남원시는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고 올바른 위생 수칙을 확산하기 위해 '손 씻기 교육용 뷰 박스(View-box) 무상 대여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뷰 박스는 손세정 검사기로 형광 로션을 손에 바르고 씻은 후 기기에 넣으면 제대로 닦이지 않은 부위가 하얗게 표시되며, 평소 자신의 손 씻기 습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어 단순 이론 교육보다 위생 수칙 준수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뷰박스를 활용할 경우, 놀이 형태의 체험 교육을 할 수 있어 올바른 위생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여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 시설 등이며, 대여 기간은 1대당 최대 5일(주말 제외)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발송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3-620-7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기자

**농진청·전북농협,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협력 본격**

**수출·스마트농업·축산 등 8대 과제 추진**

농촌진흥청과 전북농협이 전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27일 공덕농협 본점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촌진흥청-전북농협 업무협약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고, 2026년 전북 농업 현장 중심 협력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연구성과는 현장으로, 협력성과는 농업인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 농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과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협업과제 담당 부서장과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협력과제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기존 협업 사례 발표와 현장 견학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은 △수출 농산물 저장 기술 연구 △APC 현장 컨설팅 추진 △전북 특화형 신소득 원예 작물 발굴·육성 △저탄소 농업기술 지도·지원 △축산현



장 맞춤형 종합컨설팅 확대 △중소규모 시설원에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협력 △농작업 재해 예방 기술교육·홍보 협력 등 8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실익형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반기별 정기 점검회의와 과제별 담당자 중심의 수시 협력체계를 병행해 협업 과제가 실제 농업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 후 공덕농협 수출실증시설을 방문해 수출 농산물 저장 및 선도 유지 기술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중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장애인의 날 기념 '제6회 장애인문화예술 콘서트' 성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6회 장애인문화예술 콘서트'가 지난 2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소장, 이수정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 이남숙·이유진 전주시의회 의원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행사, 개회식, 본 공연, 행운권 추첨으로 구성돼 있다. 이회기씨의 대금 연주, 백성진씨의 색소폰 연주, 문태삼씨의 아코디언 연주부터 품바 개나리의 각설이 타령, 고고장구가 이날 행사에서 흥을 돋구었다. 또한, 가수 진민택·한송이·송희숙·배수진·이수정·애정아·유자·도도희·김민주·정순임·이동재·유태성씨가 무대 위에 올라 열띤 공연을 펼쳤다. /김재훈 기자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지부와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과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보건소-정읍아산병원, 지역 소멸 대응 맞손**

정읍시가 인구 10만 명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정읍시보건소와 정읍아산병원이 지역 소멸 대응에 뜻을 모았다. 김숙 보건위생과장과 직원들은 지난 28일 정읍아산병원을 방문해 캠페인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인구 정책과 집입 혜택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실제 정읍에 거주 중이면서도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병원 직원들이 집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사내 홍보와 인구 늘리기 동참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 신평동, 경로당 건강 체크 사업 추진**

군산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황보영)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90세에도 팔팔하게, 경로당 건강체크 사업을 추진한다. 90세에도 팔팔하게, 경로당 건강체크 사업은 신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한다.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간호사 공무원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 계절·시기별 맞춤형 보건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 이영면,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시 이영면 맞춤형복지팀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 연계한 보행보조기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례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임에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어르신을 맞춤형복지팀이 적극 발굴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연계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원제도를 통해 보행보조기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낙상 예방과 신체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은 "이제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 졌다"며 감사를 전했으며, 김윤자 면장은 "앞으로도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6 목회자 초청 토크 콘서트' 성료**

신천자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과 전주교회(담임 이용우)가 최근 전주 하늘문화센터 홍보관에서 지역 목회자와 시민 100여 명을 초청해 2026 목회자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세미나실에서는 이용우 지파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청중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반적 강연 대신 벗어나서 질문지를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신천자예수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